

#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정지간과 생활행위 조사연구\*

## Activities in the Chung-Ji-Kan of the Dallajae Traditional Farmhouse in Lungching, China

고 도 임\*\*  
Koh, Do Yim  
윤 북 차\*\*\*  
Yoon, Bok Cha  
박 남 희\*\*\*\*  
Park, Nam Hee  
류 영 순\*\*\*\*\*  
Ryu, Young Soon

---

### Abstract

This paper is a part of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Korean Ethnic Farmhousing in Yanbia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chung-ji-kan(the combined kitchen and major ondol living room), of the traditional farmhouse. It is based on a survey of 124 households in the farm villages of Lungching, China.

Survey research methods included a field study in Dallajae.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nduct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 1) the average family is 3.25 persons and the nuclear family type is prevalent; 2) the building plan of the farmhouse is the Ham-Kyou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the average 5.2kan(51.1m<sup>2</sup>) house; 3) the chung-ji-kan floor changed from straw matting or seomyu-pan(a kind of veneer board) to a vinyl flooring; 4) the chung-ji-kan ondol is the important center of activities for the farm family; thus the sitting life style of Korean ondol culture continues in Yanbian, China.

---

---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96년도 국제협력 연구과제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일부임.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Post-Doc, 강사

\*\*\*\*\*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남한에서 한국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것은 남북한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로 월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북한의 전통주택을 연구한 논문(강영환 ; 1996)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최근에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국교 정상화(1992년)가 이룩된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의 조선족에 관한 자료와 서적들이 쉽게 입수되고 또한 우리 나라 학자들이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개황과 농가에 대한 연구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김광역 ; 1987, 박경휘 ; 1987, 집필소조 ; 1988, 전경수 ; 1989, 김숙련 ; 1991, 이광규 ; 1992, 리화선 ; 1993, 한상복 ; 1993, 강영환 ; 1994, 김봉렬 ; 1994, 박경휘 ; 1994, 신재역 ; 1994, 심혜숙 ; 1994, 이왕기 ; 1994, 연변대 출판위원회 ; 1995, 울산대 건축 연구소 ; 1995, 국립민속박물관 ; 1996, 김종영 외 ; 1996, 권태환 ; 1996).

위의 자료 중에서 연변 조선족(朝鮮族)<sup>1)</sup> 농가의 개황과 주거를 다룬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여러 면으로 더 깊게 연구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농가 생활과 농가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취락 구조, 건축 구조와 공간 및 재료 특성을 분석하고 있어서 대부분 그 집 속에 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농가 답사시 그 집의 주부(主婦)나 가구주(家口主)를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주거 생활의 여러 측면의 현황과 변화 모습, 즉 일종의 유사종단연구(類似 縱斷 研究)<sup>2)</sup>를 통해서 중국 땅에 이민가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의 주거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

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달라재<sup>3)</sup> 지역은 함경도와 가깝고 현재도 함경도민들과의 접촉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지방의 주택과 주생활 방식에 관한 자료는 주택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산업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데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전통 농가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정지구들의 규모와 변화를 파악한다.
- 3) 정지간에서의 생활행위를 분석한다.
- 4) 가구 보유 및 비치 장소를 파악한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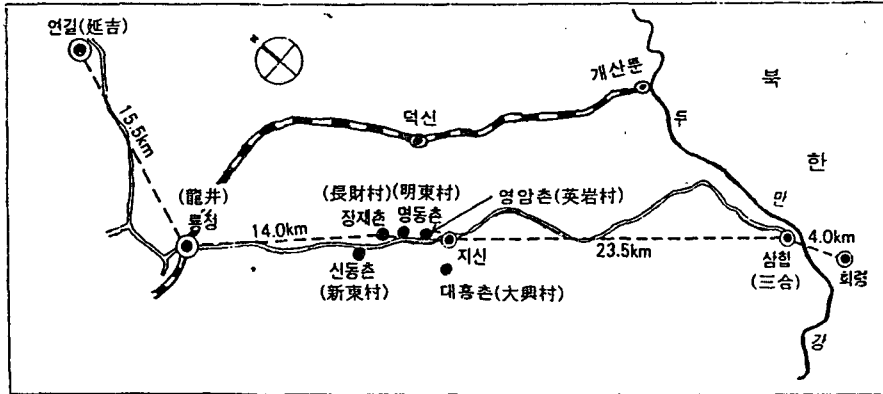
본 연구는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 기록, 실측, 사진촬영, 녹음을 하고 특히 생활문화적 측면의 실태와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고 심층면접을 녹음한다. 이 때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팀이 작성하여 예비조사(1995년 7월)를 거쳐 구조화한 것이다. 조사된 가구는 총 126가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가구는 124가구이다.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분할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팀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본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중국의 동북삼성 즉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이지만 실증적으로 조사된 곳은 용정의 달라재 지방 즉 길림성 용정시 지신진(吉林省 龍井市 智新鎮)의 명동촌

(明東村), 신동촌(新東村), 영암촌(英岩村), 대흥촌(大興村)의 4개 자연 부락이다.

조사 대상 농가는 건축된지 10년 이상의 전통농가로 새로 지은 농가와 벽돌집은 제외

되었다. 또한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이사온 지 10년 이상된 가구가 대상이 되었고, 조사 대상 응답자는 40세 이상의 주부나 가구주 혹은 노주부(老主婦)로 정하였다.



(그림 1) 조사 지역과 연관된 마을과 도시 (장재촌, 1994. p.76 보완)

## II. 조사 결과 및 논의

### 1. 전통 농가의 일반적 특성

#### 1) 마을과 주거의 개관(概觀)

용정시 지신진은 지신촌, 신동, 장재, 명동, 대흥, 동신, 원동, 성남, 성동, 덕수의 10개 촌으로 이루어졌고, 총 33개의 자연촌(屯)<sup>4)</sup>을 포함한다. 이 10개 촌 중에서 신동, 명동, 대흥촌과 영암촌(지신 10촌)등 4개 촌에서 124가구를 정밀조사 하였다.

중국 길림성의 용정시와 조사 지역의 마을

<표 1> 조사 마을의 개관

구분 마을	개척시기	개척의 성격	총가구수 (호)	남녀구성(명)		조사가구수 f(%)	비고
				남	여		
용정시 지신진	-	-	1,248	5,355		-	1982년 통계
용정시	명동촌	19세기 말	148	405	402	63( 50.8)	1996년 통계
	신동촌	20세기 초	79	171	160	20( 16.1)	
	영암촌	19세기 말	43	72	67	6( 4.8)	
	대흥촌	"	112	216	208	35( 28.2)	
계	-	-	382	864	837	12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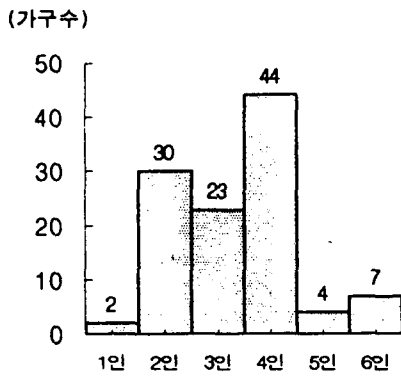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4개 마을이 모두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이고, 대흥촌 이외는 새 도로에 근접해 있어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동촌, 영암촌, 대흥촌은 그 마을 개척 시기가 19세기 말이고 신동촌만 20세기 초이다. 4개 마을 모두 개별 이주촌으로 절대 다수가 조선족 농민들이다. 지신진 전체의 가구수는 1,248호로 총인구는 5,355명이다. 조사된 4개 촌의 총인구는 1,701명인데 이는 지신진 인구의 31.8%에 해당된다.

2) 농가의 특성

(1)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대상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은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수가 평균 3.25명이라는 점이다. 이는 1990년 3.6명(권태환 ; 1996)과 1993년 3.62명으로 조사된(강영환 ; 1994) 통계 수치보다 0.35명이 감소되었다. 용정지방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표 3>의 가족 유형에서 보면 첫째, 핵가족의 추세가 더 심화되어 노인부부가족과 1인 가



<도표 1> 가구당 가족수

구가 27.4% (34가구)나 되고, 둘째는 자녀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족(漢族)은 자녀를 1명밖에 둘 수 없으나 소수민족인 조선족은 2명의 자녀가 허용되고 있지만 자녀를 1명만 둔 집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 사는 주민에게 왜 자녀를 하나만 두었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라는 대답이었다. 조사 지역의 가구당 가족수의 분포는 <도표 1>과 같다.

조사 대상 농가 호주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 설문지에 주로 응답한 주부(대부분은 주부이고, 약간은 호주의 노모임)의 평균 연령은 약 53세이고, 주부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였다.

조사된 농가의 호주와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표 2>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우선 문맹률이 호주는 8.1% (10명)인데 주응답자는 12.1% (15명)로 4%가 더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현재는 소학교가 의무 교육이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 가난한 농가에서는 소학교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학력 중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를 합하면 70.9%(88명)로 다수를 차지하나, 주부들의 경우는 62.9%(77명)로 8%(10명)나 차이가 났다. 이로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조선족 농민들 사이에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가구는 100% (124호)가 모두 농업인데 직업에서 호주 3명이 군인과 공무원이고 주부 1명이 교원으로 나타나 결국 농업과 또 다른 직업, 즉 겸업 농가가 4집 있다는 표시이다. 종교를 보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후 10여년이 지났으나 3~4명만이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이고, 무종교가 남녀 똑같이 91.1% (117명)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호도거리제도<sup>5)</sup>가 실시된 후 이 지역 농촌 경제도 차츰 발전하여 식량이 풍부하고, 부업으로 가축도 다양하게 사육하고 있다. 평지가 적고 산비탈의 구릉지(丘陵地)가 많아서 논보다는 밭이 더 많다. 즉 논 면적은 가구당 평균 2,269.1㎡인데 밭은 16,351㎡로 논 면적의 7.2배나 된다. 논은 주로 옥도하 상류(六道河上流) 양편으로 있는데 쌀과 참쌀을 재배하고, 밭에는 주로 옥수수과 콩, 연초, 조, 사탕무, 잡곡 등을 재배한다.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로는 연초와 사탕무가 손꼽힌다. 연평균 소득은 최소 1,000원(元)에서 최대 30,000원<sup>6)</sup>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은 10,843원이다. 1년간 세금은 최소 30원에서 최대 2,000원, 평균 586.6원이다. 부채가 있는 집이 34.7% (43가구)인데 최소 500원, 최대 20,000원으로 평균 4,709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2) 주택 특성

함경도식 양통집결집은 한 용마루 아래에 각 방들이 곁으로 배열되어 있는 집이다. 이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

N=124, f(%)

항 목	분 포	분 포		평 균
		호 주	주용답자	
연 령	30세미만	6( 4.8)	-	호 주 53.6세 주용답자 52.9세  주 부 50.9세
	30~39세	14( 11.3)	17( 13.7)	
	40~49세	33( 26.6)	34( 27.4)	
	50~59세	28( 22.6)	29( 23.4)	
	60~69세	25( 20.2)	38( 30.7)	
	70~79세	17( 13.7)	6( 4.8)	
	80세이상	1( 0.8)	-	
	계	124(100.0)	124(100.0)	
교 육 정 도	문 맹	10( 8.1)	15( 12.1)	-
	국문해독	1( 0.8)	1( 0.8)	
	소 학 교	25( 20.2)	30( 24.2)	
	초급중학교	78( 62.8)	67( 54.0)	
	고급중학교	10( 8.1)	11( 8.9)	
	계	124(100.0)	124(100.0)	
직 업	농 업	121( 97.6)	123( 99.2)	-
	군 인	2( 1.6)	-	
	공무원	1( 0.8)	-	
	교 원	-	1( 0.8)	
	계	124(100.0)	124(100.0)	
종 교	없 음	117( 94.4)	116( 93.5)	-
	천주교	4( 3.2)	4( 3.2)	
	개신교	3( 2.4)	4( 3.2)	
	계	124(100.0)	124(100.0)	
가 족 수	1 인	2 ( 1.6)	3.25명	
	2 인	38 ( 30.6)		
	3 인	29 ( 23.4)		
	4 인	44 ( 35.6)		
	5 인	4 ( 3.2)		
	6 인	7 ( 5.6)		
	계	124 (100.0)		

<표 3> 가족유형

N=124, f(%)

유형 세대	가족유형	계	
		소계	총계
1세대	부부	32	34( 27.4)
	1인 가구	2	
2세대	부부+자녀	60	72( 58.1)
	편부/모+자녀, 그 외	12	
3세대	부부+자녀+노모	10	17( 13.7)
	부부+자녀+손자, 그 외	7	
4세대	부부+자녀부부+손녀+노모	1	1( 0.8)
	계	124	124(100.0)

양통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지간으로 이곳은 부엌 공간과 큰 구들(정지구들)로 구성되었다. 즉 부엌과 구들 사이에 벽이 없는 것이다. 이 정지간은 가족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

어지는 중심 공간이다. 조선족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정지간의 온들은 우리 고유의 난방방식으로 중국 동북부 한족(漢族)들의 캉(炕)과는 다른 것이다. 이 캉은 방바닥 전체를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방의 일부분을 높게(40~50cm)하여 걸터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중국인들의 입식생활에 적합하나 온들은 우리의 좌식생활에 적합한 것이다. <도면 1>에서 보듯이 이 정지간을 거쳐서 옷방, 한옷방, 고방, 한옷고방으로 들어가고 또부스개<sup>7)</sup>와 바당<sup>8)</sup>에서 쇠오양간(현재 창고)으로 출입할 수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에서는 부스개에서 불을 댈 때와 그 후에 여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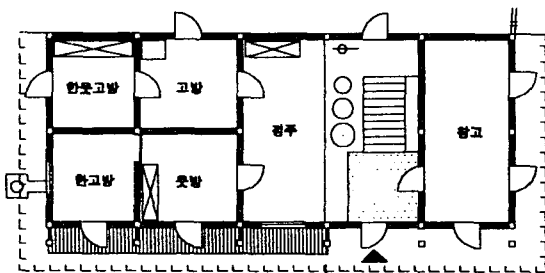
사방에서 잘 활용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사진 1>은 가마솔이 3개 걸려있고, 수도

가 뒷문쪽으로 설치되고, 그릇장이 2개 나란히 있는 곳 앞에 그 댁 주부가 앉아서 현지 조사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표 4> 주택의 일반적 특성

N = 124, f(%)

항 목		분 포	비 고	항 목		분 포	비 고
건축연대	1910년 이전	8( 6.5)	옛날집 1866년 최근집 1986년	주택의 칸 수	4 칸	38( 30.6)	평균 5.2칸
	1910~1945년	27( 21.8)			5 칸	43( 34.7)	
	1946~1957년	21( 16.9)			6 칸	29( 23.4)	
	1958~1965년	27( 21.8)			7 칸	9( 7.3)	
	1966~1977년	32( 25.8)			8 칸	5( 4.0)	
	1978~현재	9( 7.2)			계	124(100.0)	
	계	124(100.0)					
집터 (m <sup>2</sup> )	100m <sup>2</sup> 이하	3( 2.4)	평균 711.5 최소 70 최대 10,005 (m <sup>2</sup> )	주택규모 (m <sup>2</sup> )	40m <sup>2</sup> 이하	16( 12.9)	평균 51.1 최소 30.8 최대 84.0 (m <sup>2</sup> )
	101~300m <sup>2</sup>	26( 21.0)			40.1~45m <sup>2</sup>	20( 16.1)	
	301~500m <sup>2</sup>	46( 37.1)			45.1~50m <sup>2</sup>	33( 26.6)	
	501~700m <sup>2</sup>	20( 16.1)			50.1~55m <sup>2</sup>	18( 14.5)	
	701~900m <sup>2</sup>	12( 9.7)			55.1~60m <sup>2</sup>	13( 10.5)	
	901m <sup>2</sup> 이상	17( 13.7)			60.1~65m <sup>2</sup>	16( 12.9)	
	계	124(100.0)			65.1m <sup>2</sup> 이상	8( 6.5)	
계	124(100.0)						
거주기간	5년이하	6( 4.8)	평균 21.9년 최소 2년 최고 68년	주택의향	동남향	18( 14.5)	-
	6~10년	17( 13.7)			서향	2( 1.6)	
	11~15년	30( 24.2)			서남향	10( 8.1)	
	16~20년	22( 17.8)			남향	94( 75.8)	
	21~25년	9( 7.3)			계	124(100.0)	
	26~30년	18( 14.5)		지붕재료	한기와	11( 8.9)	-
	31년이상	22( 17.7)			양기와	43( 34.7)	
계	124(100.0)		초가	70( 56.5)			
계	124(100.0)		계	124(100.0)			



<도면 1> 함경도식 양통집(겹집)  
(명촌동, 라광선씨 댁)

조사대상농가의 주택 특성은 <표 4>와 같다. 건축연대를 보면 개척단 시대인 1866년에 지은 집에서부터 1986년에 지은 집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나 1966년~1977년 사이에 지은 집이 가장 많았다(25.8%).



<사진 1> 대홍촌. 김용호씨댁 (1997.4)

달라재 농가의 칸수를 <표 4>에서 보면 최소 4칸에서 최대 8칸까지 있으며 5칸집이 34.7%(43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칸 집으로 29%(36호), 세 번째가 6칸 집 23.4%(29호)이다. 평균은 약 5.2칸인데 5칸 집이 가장 많은 이유는 요즈음 농가에서 방이나 창고를 넓게 쓰려고 옷방과 고방 사이의 벽을 헐어 내어 그칸을 만들거나, 쇠오양간과 방아간 사이의 벽을 헐어 큰 창고 한칸을 만들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집 면적이 같으나 칸수가 1~3칸씩 줄어드는 것이다.

달라재 지방 농민들은 주로 함경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는 함경도식의 8칸 집과 6칸 집을 짓고 살았으며 함경도 풍습을 계승하였다(박경휘 ; 1987)고 전해진다. 한편 장백(長白) 조선족 자치현에는 의통식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신재익 ; 1994)하나 본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함경북도형 양통집의 칸수 세기는 좀 색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정지간의 칸수 세기에서 정지구들과 부엌 쪽(부스꺼와 바당)이 각각 2칸씩 되는고로 합해서 4칸인데 이것을 2칸으로 간주하며 정지구들 뒤에 있는 田자형의 방들(옷방, 한옷방, 고방, 한옷고방)은 4칸으로 계산하는 점이다. 정지간의 넓이와 위의 田자형 방의 넓이는 비슷해도 칸수는 2칸과 4칸으로 계산한다 (<도면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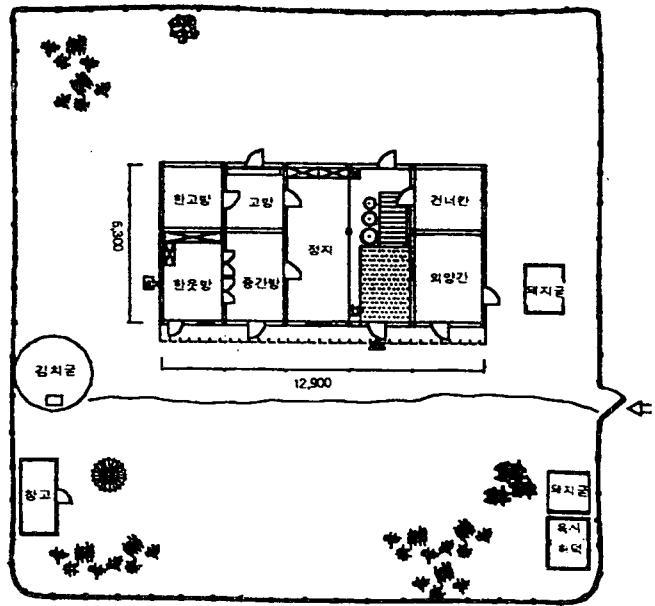
농가의 집터도 그 크기의 차이가 심한데 최소 70m<sup>2</sup>에서 최대 10,005m<sup>2</sup>까지 있으며 평균 711.5m<sup>2</sup>으로 비교적 널찍한 땅에 본채와 부속채를 짓고 앞, 뒤로 텃밭을 두고 담배나 채소 등을 재배한다.

주택 규모를 보면 최소 30.8m<sup>2</sup>(9.3평)의 집과 최대 84.0m<sup>2</sup>(25.4평)의 집이 있고 평균은 51.1m<sup>2</sup>(15.5평)이다. 가장 큰 8칸 집의 평면도가 <도면 2>이고 가장 작은 규모의 4칸 집 평면도가 <도면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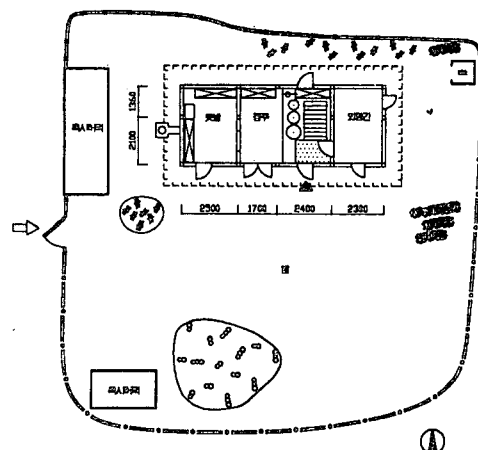
거주기간은 평균 21.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남도 승주지방농가의 거주년수 41년(고도임 ; 1995) 보다 절반이 조금 넘는 짧은 거주 기간이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같은 집과 같은 터에서 대대로 살아왔으나, 달라재지방 농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대격동

기를 거치면서 자의 혹은 타의적으로 여기저기로 혹은 같은 동네에서도 이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의 향은 한국의 전통농가와 비슷하게 75.8%(94호)가 남향이고 14.5%(18호)가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도면 2> 명동, 송덕석 씨댁



<도면 3> 명동, 정시룡 씨 댁

지붕 재료는 초가 지붕이 56.5%(70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기와로 34.7% (43

호), 제일 적은 것이 한기와로 8.9% (11호)이다. 본 연구보다 2년 앞서서 조사된 연구(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1995)에서는 초가지붕이 77%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10.5%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초가지집을 양기와집으로 개량하고 싶은 욕구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용정시 당국에서 새 도로변에 있는 초가지집을 양기와집으로 개량하도록 권장하면서 집 한 채마다 500원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팀이 답사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에 25가구의 초가지집이 양기와로 바뀌었다고 명동

이 되는 공간이 정지구들이다. 이 정지구들에서는 부엌칸과의 사이에 벽이 없기 때문에 가마솥 3개가 걸린 부스개와 출입구 쪽의 바당이 한눈에 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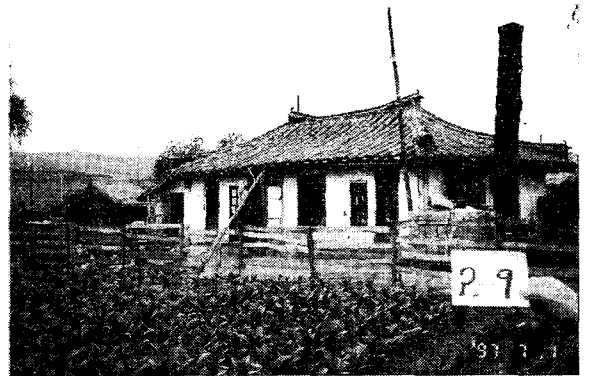


〈사진 2〉 신동촌 초가지집. 김창식씨 댁 (1997.4)

의 송 촌장이 증언하였다.<sup>9)</sup> 〈사진 2〉는 초가지집, 〈사진 3〉은 양기와집, 〈사진 4〉는 한기와집이다.



〈사진 3〉 대홍촌 양기와집. 김용호씨 댁 (1997.4)



〈사진 4〉 명동촌 한기와집. 리영원씨 댁 (1997.7)

## 2. 정지간 구들의 규모와 변화

### 1) 정지구들의 규모

달라재지방 농가의 주생활에서 가장 중심

〈표 5〉 정지구들의 규모

N=124, f(%)

항 목		분 포	비 고	항 목		분 포	비 고
구 들 면 적 (㎡)	7.00 이하	3( 2.4)	평균 10.0 최대 15.1 최소 6.0	구 들 의 친 상 고 (cm)	180이하	3( 2.4)	평균 208 최소 175 최대 250
	7.01~ 8.00	7( 5.6)			181~190	13( 10.5)	
	8.01~ 9.00	26( 21.0)			191~200	27( 21.8)	
	9.01~10.00	28( 22.6)			201~210	37( 29.8)	
	10.01~11.00	32( 25.9)			211~220	22( 17.7)	
	11.01~12.00	14( 11.3)			221~230	12( 9.7)	
	12.01~13.00	7( 5.6)			231~240	4( 3.2)	
	13.01 이상	7( 5.6)			241이상	3( 2.4)	
계		124(100.0)		계	124(100.0)		



이러한 정지간 구성 형태는 최근에 새로 지은 명동촌 촌장대의 벽돌집도 똑같은 형태이고, 나무를 때서 음식을 준비하고 동시에 구들을 덮히는 온돌방 구조도 변한 것이 없다.

달라재 지방 농가의 정지구들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같은 한 칸이라도 최소 6.02㎡(1.8평)에서 최대 15.1㎡(4.5평)이고 평균 10.0㎡(3.0평)인데, 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비율이 25.9%(32호)로 제일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은 큰 칸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작은 칸의 구들이 됐다. 구들의 천장고도는 최소 175cm에서 최대 250cm이고 평균은 208cm이다.

2) 정지구들 마감재의 변화

현재 정지구들의 마감재는 <표 6>과 같은데 비닐장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81.5%), 두번째는 섬유판인데<sup>10)</sup> 1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츰 비닐장판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깔개<sup>11)</sup>는 2가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섬유판이 나오기 전, 즉 50~60년 전에 대다수가 사용하던 것이다. 깔개의 종류로는 노전, 지적, 돛자리, 구름깔 <표 6> 정지구들의 마감재

N=124, f(%)

구 분	현 재
재래식장판	1( 0.8)
비닐장판	101( 81.5)
깔개	2( 1.6)
섬유판	20( 16.1)
계	124(100.0)

개 등이 있다. 노전은 갈대로 만든 것이고, 지적은 표면을 왕골로 하고 밑을 벗짚으로 엮은 것이다. 돛자리는 순 왕골로 짠 것으로 옷방, 사랑방 등 조용한 방에 깔고, 구름깔개는 참나무를 얇게 켜서 만든 깔개로 산간지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박경휘 ; 1987).

정지구들 마감재의 변화는 <표 7>과 같이 다양하다. 우선 1940년대까지는 모두가 깔개에서 새 깔개로 교체되고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1950~1960년 초반에 처음으로 섬유판이 등장하여 1966~1977년 사이에는 섬유판이 상당히 보급되었다. 이 섬유판 설치는 1980년 초까지 계속되었고 이 때 설치한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다.

온돌 마감재로 가장 최근까지 널리 선호되고 있는 비닐장판은 197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여 1983년 이후는 대다수의 농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정지구들 마감재의 변화 횟수와 유형은 <표 8>과 같다. 당대(當代)에 네 번 즉 깔개→재래식장판→섬유판→비닐장판으로 바뀐 집은 2.4%(3가구)이며, 세 번 바뀐 집도 2.4%이다. 두 번 바뀐 집은 24.2%(30가구)나 되고 한 번 바뀐 집이 58.1%(72가구)로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깔개에서 비닐장판으로 바뀐 집이 32가구로 제일 많다. 온돌 바닥 마감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집들을 보면 그 이유가 각기 다르다. 즉 재래식장판을 고수해 온 집과 이사를 와 보니 이

<표 7> 시기별 정지구들 마감재의 변화

N=124, 중복응답, f(%)

과거마감재→현재마감재	변화시기					모름	계
	'45년이전	'46~'65년	'66~'77년	'78~'82년	'83년이후		
깔개 → 깔개	1	7					8( 5.3)
재래식 → 깔개		1	1				2( 1.3)
깔개 → 종이/신문지			3				3( 2.0)
깔개 → 섬유판		4	20	14	5		43( 28.5)
깔개 → 비닐장판		1	3	5	24	1	34( 22.5)
섬유판 → 비닐장판			3	10	44		57( 37.7)
종이/신문지 → 비닐장판			1		1		2( 1.3)
깔개 → 베니아판					1		1( 0.7)
재래식장판 → 비닐깔개					1		1( 0.7)
소 계	1 (0.7)	13 (8.6)	31 (20.5)	29 (19.2)	76 (50.3)	1 (0.7)	151(100.0)

〈표 8〉 정지구들 마감재의 변화 횟수와 유형

N=124, f(%)

변화 횟수	마감재 변화유형	계	변화 횟수	마감재 변화유형	계
0	재래식장판	1	2	갈개→재래식장판→섬유판	1
	섬유판	8		갈개→갈개→비닐장판	26
	비닐장판*	7		갈개→섬유판→비닐장판	1
	소 계	16( 12.9)		종이→섬유판→비닐장판	1
				갈개→신문지/종이→비닐장판	1
1	갈개→섬유판	10	소 계	30( 24.2)	
	재래식장판→섬유판	1	3	갈개→갈개→섬유판→비닐장판	2
	갈개→비닐장판	32		갈개→재래식장판→섬유판→비닐장판	1
	섬유판→비닐장판	26	소 계	3( 2.4)	
	종이/신문지→비닐장판	1	4	갈개→갈개→갈개→섬유판→비닐장판	2
	갈개→베니아판	1		갈개→갈개→재래식→섬유판→비닐장판	1
	재래식장판→비닐갈개	1		소 계	3( 2.4)
소 계	72( 58.1)				
계				124(100.0)	

\* 비닐장판으로 바뀐 시기를 모르거나 신축 당시부터 비닐장판을 깔 경우임.

미 섬유판이나 비닐장판으로 되어 있었던 집, 10~20년 전 새 집을 지을 때 섬유판이나 비닐장판으로 온돌 마감한 경우에 마감재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구들의 벽은 모두가 회벽이고 천장도 대다수가 서까래까지 하얗게 회칠을 하였다.

### 3. 정지구들에서의 생활행위

달라재 농가의 정지구들은 한국 농가의 안방과 같이 가족의 중심 공간이다. 이 정지구들에서 대다수의 부부와 어린이가 취침하고 함께 기거하는데 〈표 9〉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예측했던대로 정지구들을 취침과 기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주부는 96%, 호주는 95.2%, 손자녀 66.7%, 자녀 2는 56.3% 순으로 나타났고, 옷방을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나타났다. 특히 농가에서 노모를 모시는 10가구에서는 노모를 옷방과 고방에서 모시면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지구들을 포함하여 각 공간에서의 일상 행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일상 행위와 공간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주택

구조와 관련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달라재지역의 농가 주택에서는 4칸 집, 5칸 집, 6칸 집, 8칸 집의 생활행위가 모두 (비슷함으로 구태여 분류하지 않았다) 비슷하여 구조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우선 가족들의 식사 및 단란행위를 보면 대부분 정지구들에서 식사는 100%, 간식은 99%, 가족 대화는 96.8%, TV 시청은 92%이고 휴식도 90%, 몸치장도 74.5%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정지구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가에서 큰 오락은 바로 TV를 시청하는 일이다.

생리 위생 행위 중 세면, 세족, 목욕행위는 부스개와 바당에서도 얼마간은 이루어진다. 특이한 점은 달라재의 겨울이 추운데도(영하 20~30℃) 정지구들에서 요강 사용이 없다는 점이다. 겨울이 이곳보다 훨씬 덜 추운 전남지방 농가에서는 90%가 아직도 안방에서 요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도임; 1966).

달라재 농가 주부의 작업 행위 가운데도 의류 관리는 주로 정지구들에서 하였고(87.5%) 음식 준비는 부스개(87.4%)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이는 모든 농가의 부스개 옆에 펌프

〈표 9〉 가족의 취침 및 기거공간

N=124, f(%)

공간 관계	정지구들	웃 방	고 방	기 타	계
호 주	118( 95.2)	3( 2.4)	-	3( 2.4)	124(100.0)
주 부	119( 96.0)	2( 1.6)	2( 1.6)	1( 0.8)	124(100.0)
자녀 1	29( 41.4)	38( 54.3)	-	3( 4.3)	70(100.0)
자녀 2	18( 56.3)	12( 37.5)	2( 6.2)	-	32(100.0)
자녀 3	2( 50.0)	2( 50.0)	-	-	4(100.0)
노 모	2( 20.0)	4( 40.0)	4( 40.0)	-	10(100.0)
손자/녀	4( 66.7)	1( 16.7)	1( 16.7)	-	6(100.0)
친 척	-	4( 80.0)	1( 20.0)	-	5(100.0)
계	292( 77.9)	66( 17.5)	10( 2.7)	7( 1.9)	375(100.0)

나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마솥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지구들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경우는 12.6% 밖에 되지 않는다. 상품 매매나 가계부 정리하는 일도 정지구들에서 73.5%가 이루어지고 그 외 바당과 기타 장소에서도 조금씩 행해진다.

자녀 양육 및 교육 행위도 정지구들이 중심이 되는데 자녀 양육 항목에 대한 응답 가구수가 적은 것은 타 항목의 응답자 중 40여 가구가 노부부, 1인 가구 및 아이들이 없는 가구여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0〉 일상행위별 공간이용

N=124, 중복응답, f(%)

행 위	공 간	정 지구 구 들	웃 방	고 방	부스께	바 당	마 당	기 타	계
식 사 및 단 란 행 위	식사	124 (100.0)	-	-	-	-	-	-	124 (100.0)
	간식	97 ( 99.0)	1 ( 1.0)	-	-	-	-	-	98 (100.0)
	T.V 시청	107 ( 92.2)	9 ( 7.8)	-	-	-	-	-	116 (100.0)
	가족 대화	121 ( 96.8)	4 ( 3.2)	-	-	-	-	-	125 (100.0)
	계	449 ( 97.0)	14 ( 3.0)	-	-	-	-	-	463 (100.0)
생 리 위 생 행 위	휴식	118 ( 90.0)	11 ( 8.4)	1 ( 0.8)	-	-	1 ( 0.8)	-	131 (100.0)
	세면, 세족, 목욕	24 ( 17.1)	-	-	91 ( 65.0)	25 ( 17.9)	-	-	140 (100.0)
	요강 사용	-	-	-	-	6 ( 85.7)	1 ( 14.3)	-	7 (100.0)
	몸치장	108 ( 74.5)	19 ( 13.1)	8 ( 5.5)	4 ( 2.8)	5 ( 3.4)	1 ( 0.7)	-	145 (100.0)
	계	250 ( 59.1)	30 ( 7.1)	9 ( 2.1)	95 ( 22.5)	36 ( 8.5)	3 ( 0.7)	-	423 (100.0)
작 업 행 위	의류관리	92 ( 87.5)	11 ( 10.5)	-	-	1 ( 1.0)	-	1 ( 1.0)	105 (100.0)
	음식준비	20 ( 12.7)	-	-	138 ( 87.3)	-	-	-	158 (100.0)
	상품매매/가계부	83 ( 73.5)	-	-	2 ( 1.8)	19 ( 16.7)	4 ( 3.5)	5 ( 4.4)	113 (100.0)
	계	195 ( 51.9)	11 ( 2.9)	-	140 ( 37.2)	20 ( 5.3)	4 ( 1.1)	6 ( 1.6)	376 (100.0)
자녀 양육 및 교 육	애기 양육	19 ( 79.2)	4 ( 16.7)	1 ( 4.1)	-	-	-	-	24 (100.0)
	자녀 교육	24 ( 57.1)	15 ( 35.7)	2 ( 4.8)	-	-	-	1 ( 2.4)	42 (100.0)
	계	43 ( 65.1)	19 ( 28.9)	3 ( 4.5)	-	-	-	1 ( 1.5)	66 (100.0)
취 미 · 종 교 활 동	독서	61 ( 79.2)	16 ( 20.8)	-	-	-	-	-	77 (100.0)
	운동	3 ( 37.5)	2 ( 25.0)	-	-	1 ( 12.5)	2 ( 25.0)	-	8 (100.0)
	기도/치성	6 ( 75.0)	1 ( 12.5)	-	-	-	-	1 ( 12.5)	8 (100.0)
	예술 활동	8 ( 88.9)	1 ( 11.1)	-	-	-	-	-	9 (100.0)
	계	78 ( 76.5)	20 ( 19.6)	-	-	1 ( 1.0)	2 ( 1.9)	1 ( 1.0)	102 (100.0)

취미·종교 활동을 보면 정지구들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었고, 운동, 기도나 치성, 예술활동을 하는 가구는 적었다. 농가 주부들의 이러한 취미·종교 활동이 현재는 소수지만 앞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이 행위도 차츰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4. 정지구들에 비치된 가구(家具)

조사대상 농가의 가구를 조사한 것은 <표 11>과 같다. 가구는 보통 가구와 전자제품과 소품등으로 구분된다. 가구 보유 현황을 보면 식기장(100.0%), 이불장(86.3%), 진열장(59.7%), 옷장(38.7%), 책상(29.8%), 결상(24.2%)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정지구들에는 식기장(食櫃이라고 함)이 100%, 진열장이 35.5%, 화장대가 57.9%, 옷걸이가 80% 비치되어 있었다.

특히 달라재 지방의 화장대는 대단히 간단한 것으로 보통은 큰 거울 밑에 빗 1~2개 있는 것을 가리키며 간혹 화장대 거울 앞에 화장품이 약간 있는 집도 있었다.

전자제품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TV 세트(91.9%), 그 다음이 라디오(44.4%), 오디오(24.2%)의 순이었다. 이 가전제품의 1/3이 정지구들에 비치되어 있었고, 옷방에 비치된 것도 많으나 거의 다 정지구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정지구들 쪽을 향해 놓았다.

소품 중 많이 보유한 품목이 벽시계(90.4%)인데, 정지구들의 벽면에 부착시켰고, 사진틀에는 가족과 친척의 혼인식, 환갑잔치, 돌잔치, 특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넣었고, 보통 1~3개씩 보유한 집이 41.5%이다. 적은 수이나 화병과 그림도 정지구들에 비치하고 있었다.

<표 11> 가구 보유 및 비치장소

N=124, 중복응답, f(%)

항 목	보유 가구수	비 치 장 소							보유수량*	
		정지구들	옷방	고방	건너칸	한옷방	한옷고방	창고		
가 구	식기장	124(100.0)	123( 99.2)	1( 0.8)	-	-	-	-	-	124(100.0)
	이불장	107( 86.3)	3( 2.7)	89( 80.9)	13( 11.8)	1( 0.9)	2( 1.8)	2( 1.8)	-	110(100.0)
	진열장	74( 59.7)	27( 35.5)	46( 60.5)	1( 1.3)	-	2( 2.6)	-	-	76(100.0)
	옷장	48( 38.7)	1( 2.1)	39( 81.2)	5( 10.4)	1( 2.1)	1( 2.1)	1( 2.1)	-	48(100.0)
	책상	37( 29.8)	-	29( 78.4)	2( 5.4)	4( 10.8)	1( 2.7)	-	1( 2.7)	37(100.0)
	결상	30( 24.2)	2( 6.7)	22( 73.3)	3( 10.0)	1( 3.3)	1( 3.3)	-	1( 3.3)	30(100.0)
	화장대	19( 15.4)	11( 57.9)	8( 42.1)	-	-	-	-	-	19(100.0)
	침대	11( 8.9)	2( 18.2)	4( 36.3)	1( 9.1)	1( 9.1)	-	1( 9.1)	2( 18.2)	11(100.0)
	책장	8( 6.4)	-	7( 87.5)	1( 12.5)	-	-	-	-	8(100.0)
	종합장	5( 4.0)	1( 20.0)	4( 80.0)	-	-	-	-	-	5(100.0)
	서랍장	3( 2.4)	-	3(100.0)	-	-	-	-	-	3(100.0)
전 자 제 품	옷걸이	5( 4.0)	4( 80.0)	1( 20.0)	-	-	-	-	-	5(100.0)
	보조탁자	3( 2.4)	1( 33.3)	1( 33.3)	1( 33.4)	-	-	-	-	3(100.0)
	보조의자	1( 0.8)	-	1(100.0)	-	-	-	-	-	1(100.0)
	계		175( 36.5)	255( 53.1)	27( 5.6)	8( 1.7)	7( 1.5)	4( 0.8)	4( 0.8)	480(100.0)
전 자 제 품	TV세트	113( 91.9)	44( 38.3)	70( 60.9)	-	-	1( 0.8)	-	-	115(100.0)
	오디오세트	30( 24.2)	8( 26.7)	20( 66.7)	2( 6.6)	-	-	-	-	30(100.0)
	라디오	55( 44.4)	21( 39.6)	37( 69.8)	-	1( 1.9)	-	-	-	59(100.0)
계		73( 35.8)	127( 62.2)	2( 1.0)	1( 0.5)	1( 0.5)	-	-	204(100.0)	
소 품	벽시계	112( 90.4)	103( 91.2)	10( 8.8)	-	-	-	-	-	113(100.0)
	사진틀	51( 41.2)	40( 76.9)	12( 23.1)	-	-	-	-	-	52(100.0)
	그림	8( 6.4)	6( 75.0)	2( 25.0)	-	-	-	-	-	8(100.0)
	화병	10( 8.0)	4( 40.0)	5( 50.0)	-	-	1( 10.0)	-	-	10(100.0)
계		153( 83.6)	29( 15.8)			1( 0.6)	-	-	183(100.0)	

\* 이 값은 보유수량을 나타냄(보유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 중 보유한 가구를 표시한 것과 구분)

종합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정지구들에서 일어나고, 전자제품, 소품, 진열장, 화장대 등 많은 가구가 정지구들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달라재 전통농가에서는 정지구들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III. 결론 및 제언

달라재지방의 명동촌, 신동촌, 영암촌, 대홍촌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지신진의 10개 촌 중에 일부로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형성된 개별 이주촌이다. 이 4개 촌 중 신동촌과 영암촌은 순수 조선족 마을이고 명동촌과 대홍촌은 극소수이나 타 민족과 함께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다.

이 곳 농민들은 거의 다 함경북도에서 그 조상들이 이주해 와서 함경북도식 양통형 주거 평면의 집을 짓고 거주하였으며 지금도 이 형식을 보존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 지은 벽돌집도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지간이 특색인 이 양통형 집에서는 대다수가 가마솥 세 개를 설치하고 나무를 때어서 구들을 데우고 동시에 취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온돌방에서는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특히 호도거리 제도가 실시된 후로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농가생활은 여러 면으로 향상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서술한다.

1. 가족수 평균이 3.25명으로 감소되고 핵가족이 많고 호주 평균 연령이 53.6세로 높아지고 있어 이 곳 농촌의 가구당 인구 감소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교육 정도가 여자보다 높아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곳 주민의 직업은 모두 농업인데 부업과 겸업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 이 곳 농가의 절대 다수가 함경북도식

양통형 주택이다. 우리 고유의 온돌 난방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 거주 기간은 평균 약 22년으로 농민으로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 농가의 규모는 5칸 집이 가장 많았고, 주택면적은 평균 15.5평이다. 지붕 재료는 초가지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양기와, 한기와순이다. 초가 지붕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대신 양기와 지붕이 증가하고 있다. 정지구들의 규모는 평균 3.0평이다. 정지구들의 마감재는 현재 대다수가 비닐장판이나 1945년까지는 모두 깔개(노전, 지적, 돛자리, 구름깔개)였다. 현재는 대다수가 비닐장판이고 섬유판이 약간있으며, 벽과 천장의 마감은 대다수가 회칠이다.

3. 달라재 농가의 정지구들은 한국의 안방과 같이 가족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이 정지구들에서 대다수의 부부와 어린이가 취침하고, 기거하며, 식사와 간식, 가족대화, TV시청, 휴식 등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행위가 좌식생활 형태로 한국적 온돌 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다.

4. 주택 내 가구 보유 및 비치 장소로 식기장은 거의다 정지간에 비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가구와 전자제품 및 소품 등은 옷방에 비치한 것도 있으며 특히 TV는 정지구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정지구들을 향해서 놓여 있었다. TV 시청은 농민들의 가장 큰 오락거리이다. 소품(小品)으로 벽시계, 사진틀 등이 있는데 거의 다 정지구들에 걸려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경도의 농가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농가 주택과 농가 생활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데도 공헌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연변지구의 다른 지역들, 즉 장백 조선족 자치현과 안도현, 도문시, 훈춘시 지역에서도 조사하여 비교·연구함이 좋겠다. 또한 연변 자치주내 부락 중 한족이 많이 사는 농촌을 조사하여 조선족 농가의 주생활과 비교,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

- 1) 조선족을 한민족(韓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한족(漢族)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이라고 부른다.
- 2) 유사종단연구(quasi-longitudinal study) : 일종의 통시적(通時的) 분석으로 주거 문화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하는 것.
- 3) 달라재 : 용정지방 명동촌, 장재촌, 신동촌, 영암촌과 대흥촌 일대의 옛날 명칭으로, 한문으로 대립자(大粒子) 혹은 대랍자(大拉子)를 달라재로 불렀다.
- 4) 툄(屯) : 자연부락의 개념으로 한 개의 작은 마을인데 이것이 모여서 촌(村)을 이룬다. 명동촌은 7개 툄으로 구성되었다.
- 5) 호도거리제도 : 중국에서 집단체제의 농토를 가구별로 배분한 토지개혁제도이다. 1978년에 제도가 마련되고 연변지역에서 1982년에 실시되었다.
- 6) 웬(元) : 1웬은 한국 돈으로 약 100원이다. 1997년 4월 한우 쇠고기 1근(500g)에 8웬, 쌀 1근에는 1웬 50전~2웬이다. 농삿 일 하루 품삯은 25웬이다.
- 7) 부스개(부스깁) :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곳인데 이 움푹 파진 곳의 윗면을 나무널빤지로 막아서 불을 때지 않을 때는 부엌평면을 넓게 쓸 수 있다.
- 8) 바당 : 본채 출입구 쪽의 흙바닥을 지칭하는데, 현재는 시멘트로 마감처리되고 있다.
- 9) 명동촌의 송길연 촌장(서기 겸직) : 새도로 주변의 초가집을 양기와 집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500웬을 받아서 집주인이 300~500웬을 보태서 지붕개량을 하겠다고 한다.
- 10) 섬유판 : 공장에서 얇은 널빤지(1인용 침대넓이) 위에 톱밥을 고루 깔고 기계로 바짝 눌러 붙인 후 노란 니스칠을 한 것.
- 11) 깔개 : 달라재 사람들은 '까래'라고도

함. 수수깡대를 납작하게 누른 후 엮거나 짚혹은 갈대를 잘 다듬어서 엮은 것.

## 參 考 文 獻

1. 강영환(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주거 공간 및 생활방식", 한국건축역사연구 5.
2. 강영환(1996), "북한 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1)", 한국건축사연구 10.
3. 고도임(1995), "전남 승주지방 전통농가와 주생활의 변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4. 고도임(1996), "구술사에 의한 전통농가 노주부의 결혼당시와 현재 주생활의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7권 2호.
5.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제민속 박물관 학술총서 19.
6.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통일원.
7. 김동화 외 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총서 편찬위원회(1994), 중국 조선족연구, ①, ②, ③.
8. 김봉렬(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한국건축역사연구 5.
9. 김성우(1987), "동양 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공간 238.
10. 김숙련 등(1991), 「중국 연변」, 김영사.
11. 김종영 외 3인(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 구성형태와 그 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12. 리화선(1993), 「조선 건축사 I, II, III」, 도서출판 발언사.
13. 박경휘(1987), 「조선 민족사 연구」, 중국 심양 료녕출판사.
14. 박경휘(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 풍속, 집문당.
15. 심혜숙(1992),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연구 분포」, 연변대출판사.

16. 신재억(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 주거의 건축적 특징, 한국건축 역사연구 5.
17. 연변대 편찬위원회(1995), 중국 조선족의 우열성 연구, 서울대 출판사.
18. 용정현지(1989), 용정현 지방지 편찬위원회.
19. 울산대 건축연구소(1995), "장재촌", 울산대 출판부.
20. 이왕기(1994),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21. 이지택(1972.10.12~1972.11.21), 북간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동양방송.
22. 전경수(1989), "중국 동북의 조선족:민족지적 개황",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11(2),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23.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룡정현 위원회(1986), 룡정문사자료 1, 2, 3집.
24.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25. 집필소조(1988),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중국의 우리 민족」, 도서출판 한울.